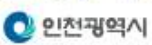
		보 도 자 료		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
배포일자		2021년 6월 10일(목) 총 5매		
담당 부서	정책기획관실	담당자	• 기획담당 양상훈 ☎440-2131 • 담당자 서정목 ☎440-2132	
사진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「인천 독립 40년」 홈페이지 개설 및 예약접수 시작
- 시민자문단과 함께 만든 주요 행사 프로그램 게시 -

-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「인천 독립 40년 기념」 전용 홈페이지를 6월 10일 시민에게 공개하고, 그간 시민자문단과 함께 논의해 온 행사 프로그램을 게시했다고 밝혔다.
- 행사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과 예약방법은 인천 독립 40년 전용 홈페이지(<https://www.incheon.go.kr/forty>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※ 전용 홈페이지는 시청 홈페이지(<https://www.incheon.go.kr>)에서 접속할 수 있으며, 각종 포털사이트에서는 2~3일 후 ‘인천 독립 40년’을 검색하여 접속할 수 있음
- 인천시는 지난 1981년 경기도에서 독립해 직할시로 승격한지 40년이 되는 7월 1일을 전후하여, 시민들과 함께 4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를 그리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.
- 행사 슬로건 ‘인천 독립 40년, 긍지의 역사 희망의 미래’를 시민들이 직접 온라인 투표로 결정하고, 옛 송학동 시장관사의 새 이름 ‘인천시민애(愛)집’도 시민들이 직접 정했다.
- 또한 행사 프로그램을 일반시민, 전문가,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「인천 독립 40년 행사 시민자문단」에서 결정했다.

■ 행사는 6월 30일 인천의 미래를 논하는 ‘시민시장 대토론회’ 부터 시작한다.

- 시민시장 대토론회는 ‘인천 독립 40년, 함께 그리는 미래!’ 라는 주제로 스타트업파크, 제물포구락부 등 5개 장소에서 동시에 열리며,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온·오프라인으로 연계되어 진행된다.

■ 7월 1일에는 ‘인천 독립 40주년 기념식’ 과 ‘옛 시장관사 개방행사’ 가 인천시청과 옛 송학동 시장관사에서 열린다.

- ‘옛 시장관사 개방행사’ 는 1966년부터 관(官)에서 이용하던 공간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을 기념해, 시민들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인 “인천시민애(愛)집” 현판식과 가수 ‘하림’ 과 퓨전국악밴드 ‘온도’ 가 참여하는 작은 음악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.
- 특히 코로나19로 제한된 인원만 참석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, 시민들로부터 사연과 함께 신청을 받아 특별 손님으로 초대할 예정이다. 사연 공모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.

■ 7월 2일에는 ‘기자간담회’ 가 제물포구락부에서 진행된다.

- 기자간담회는 박남춘 시장이 인천 독립 40년 속에서 민선 7기의 역할과 과제를 돌아보고, 앞으로의 미래 비전과 방향을 논의하고 기자들과 질의·응답하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다.

■ 7월 3일에는 ‘기념토론회’ 가 제물포구락부에서 진행된다.

- 첫 번째 토론회는 ‘인천 독립 40년의 의미와 미래’ 를 주제로 인천에 인연과 애정을 가진 분야별 석학들이 인천 독립 40년을 평가하고 미래 방향을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.

○ 두 번째 토론회는 직할시로 승격된 1981년 전후에 출생한 청장년들이 도시재생, 공동체 지원 정책 등 현장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인천의 정체성과 다양한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‘도시·마을·동네 토크콘서트’가 진행될 예정이다.

■ 그 외에도 인천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함께 관람하는 ‘인천영화 열전’과 ‘인천스텔라 백승기 감독과의 만남’,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지부터 김수근 건축가가 설계한 「이음1977」까지 송학동의 역사문화 공간을 전문스토리텔러와 함께 걸으며 즐기는 ‘송학동 역사산책길 투어’ 등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.

■ 특히 인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해 실내에서 개최되거나 많은 사람이 집중될 수 있는 행사는 홈페이지 사전예약을 통해 인원을 제한할 계획이다. 시민들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불가피한 조치로 시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다.

■ 여중협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“인천은 지난 40년간 도시, 경제 규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례없는 성장과 발전을 이루며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견인한 자랑스러운 도시” 라면서,

○ “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궁지의 역사를 돌아보고,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 40년으로의 희망과 도약을 준비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” 고 밝혔다.

참고1

행사 취지와 상징물

□ 행사 취지

- 300만 인천시민이 함께 만들어온 40년 공지의 역사를 기념합니다.
 - 1981년부터 독자적 행정·재정 운영으로 도시 발전·성장 견인
 - 항공·항만·산단·경제자유구역 등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기여
 - 5.3. 인천 민주항쟁, 노동운동 등으로 대한민국 민주화에 기여
- 인천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모색합니다.
 - 디지털 전환, 기후변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 대응전략 모색
 - 전문가·시민이 함께 산업구조 고도화, 환경문제 치유 등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는 장 마련
- 인천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을 고취합니다.
 - ‘이민자의 도시, 포용의 도시 인천’에서 인천을 사랑하는 300만 시민이 하나되는 계기 제공
 - 우리시의 40년을 함께 축하하고 행사를 즐기며 화합을 통해 인천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고취

□ 상징물



- 물방울 모양 3개는 인천의 과거, 현재, 미래를 각각 상징
- 특히 물결로 표현된 패턴은 층층이 쌓아온 공지의 역사를 의미
- 숫자 40의 붉은색은 서해의 장엄한 태양을 의미하며 자유로운 형태가 희망차고 역동적인 인천의 미래를 의미

참고2

행사 프로그램

※ [범례] ① 기념·개방행사 ② 언론·학술행사 ③ 참여·체험행사 ④ 전시·관람행사

구분 \ 일자	6.30.(수)	7.1.(목)	7.2.(금)	7.3.(토)	7.4.(일)
주간	시민시장 대토론회 (14:00~16:30, 인천 스타트업파크 외)	인천 독립 40주년 기념식 (10:30~11:20, 인천시청 중강홀) 옛 시장관사 개방행사 (17:50~19:30, 인천시민회관) (옛 송학동 시장관사)	시장 기자간담회 - 인천 독립 40년과 인천7기 역할 - (14:00~15:00, 제물포구락부)	기념토론회1 - 인천 독립 40년 의미와 미래 - (13:00~15:00, 제물포구락부) 기념토론회2 - 도시·마을·동네 토크콘서트 - (15:30~17:00, 제물포구락부)	
저녁		인천개항장 문화재 소야행 (17:00~21:00, 개항장 문화지구 일원)			
		인천영화열전 - 영화(이성) - (19:30~21:30, 인천아트플랫폼C동)	감독과의 만남/ 인천영화열전 - 영화(인천스릴라) - (18:00~21:30, 인천아트플랫폼C동) - 19:00~19:30 감독과의 만남 - 19:30~21:30 영화상영	인천영화열전 - 영화(마나리) - (14:00~16:00, 인천아트플랫폼C동)	
전일		기념전시1: "어서오십시오. 인천직함시입니다." (7.1~7.31, 인천시민회관)			
		기념전시2: "나무가 들려주는 인천이야기" (6.22~8.31, 제물포구락부)			
		기념전시3: 인천시민회관 개관 특별전 (7.1~8.31, 인천시민회관)			
		송학동 역사산책길 투어(오감이 즐거운 인문로드) (7.1~7.4, 11:00, 17:00 하루 2회/청일초계지계단에서 이음1977까지)			

※ 구체적인 행사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